



밀알&세계

08 2017 | Vol.300

MILAL & WORLD

■ 칼럼

사랑의캠프의 기적

시카고밀알선교단은 1994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사랑의캠프는 금년이 25주년이었습니다. 시카고도 매년 동부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늘 참석인원이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작년 2016년에는 18명이 캠프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숫자도 예년에 비해 많은 참석 인원이었습니다. 미니밴 1대, 15인승 밴 1대, 이렇게 2대의 차량으로 편도 15시간, 왕복 30시간의 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캠프는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캠프에 참가한 시카고밀알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오고 가는 여정이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돌아오면서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내년(2017) 캠프에 30명 이상이 가면 우리도 큰 관광버스 빌려서 캠프에 간다.” 말은 이렇게 철석같이 했지만, 금년 2월 들어서면서 큰 고민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첫째, 과연 30명 이상 캠프에 갈 수 있을까? 둘째, 관광버스를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사실 30명 이상 캠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관광버스를 빌릴 명분이 없겠죠. 적은 인원이 큰 버스를 빌린다는 게 비합리적이고 임대료가 엄청 비쌀 테니 말입니다.

2월부터 캠프에 가자고 말했지만, 좀처럼 20명을 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2016년 18명도 시카고밀알 역사상 가장 많이 참석한 숫자니까요. 3월, 4월, 5월이 되어도 여전히 참가 인원은 3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관광버스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대절하는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예년에 약 \$4,000 정도 소요되던 캠프 비용이 \$12,000까지 뛰었습니다.

과연 2017년 사랑의캠프에는 몇 명이 참석할까? 과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갔다 오게 될까? 마음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더니 2017년 시카고에서 44명이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계약도 마쳤습니다. 참석 인원이 40명이 넘자, 예산도 약 \$16,000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처럼 다



표지사진:

6월 10일(토), 필라델피아밀알 가족들이 봄 소풍을 가 예배와 친교, 게임 등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밀알가족들이 밝은 얼굴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차례

- 02. 칼럼
사랑의캠프의 기적
- 04. 아름다운 섬김
유니스와 함께하는 기쁨
- 06. 유쾌한 봄 소풍
초록의 향연, 숲속에서 한때를 즐기다
- 08. 2017 밀알의밤 특집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수, 강군성
- 10. 2017 사랑의캠프
발달장애아와 함께 자고 퉁굴며 ‘아름다운 섬김’
- 12. 이모저모
사진으로 보는 시카고밀알
- 14. 감동의 하루
성경의 인물을 성극으로 만나다!
- 15. 따스한 위로
Rest in Peace, Paris!
- 16. 밀알공통
2017 남미밀알 단장 컨퍼런스

밀알&세계

뉴욕 • 코네티컷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300호 | 2017년 8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강원호, 정택성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코네티컷: 203-733-0156
뉴저지: 201-530-0355 | 필라델피아: 267-475-8637
캐나다: 416-491-0002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7월20일-22일, 시카고밀알선교단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은 부푼 마음으로 사랑의캠프에 참여하여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처럼 보였고 안 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글 | 남성우 목사 (시카고 밀알 단장)



유니스와 함께하는 기쁨

편집자 주: 아래 내용은 뉴욕밀알선교단의 자원봉사자가 쓴 글입니다. ‘혜수’와 ‘혜민’ 자매는 쌍둥이입니다. 주 중에 밀알 사무실에 지적장애가 있는 유니스를 돌봐 주면서 느낀 점을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두 자매가 유니스를 돌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This familiar question I’ve heard all my life was always followed by empty answers because in truth, I never really knew why. My answers consisted of the fact that I was named after a Korean hospital, my life changing experience of dissecting a brain, or the fact that I want to defy all odds against me; but, I found, even myself, not able to believe these answers. When I think of these moments in my life I don’t feel that spark of inspiration like I should but instead, indifference.

I set out and desperately sought after the answer I was looking for. God brought me to the New York Milal where I met a girl named Eunice. Initially, I was scared to work with someone with a disability or anyone remotely different than me. But nevertheless, this is what I set out for so I agreed to volunteer for her four days out of the week. Immediately I knew that Eunice

was a vibrant, sweet, and caring girl. Through the snacks we shared, the movies we watched, and the walks to the local library,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Eunice and I actually had a lot in common. That shallow girl that I had started off as was disappearing; I was no longer scared of people unlike me, but able to embrace and empower them.

Eunice opened my eyes to difference and she gave me the ability to accept it. Although I started off volunteering thinking that I would be a help to Eunice, she unknowingly helped me become a better person. I am eternally grateful that she has helped me find the answer I was so desperately searching for. When I think of her, I will feel that spark of motivation and inspiration.

I started this journey because I wanted to get volunteer credit but, the experience gave me so much more in return. The friendship I formed with Eunice showed me



that the goal of service isn’t about how many hours I put in that day but the impact I made on someone else’s life. I was exposed to Eunice’s company and I now have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on what it means to help others. I realized why I wanted to pursue a career in the medical field and I made a friend I will never forget. At the start of this journey, I was worried about the future, confused about college, and scared of difference. Now, I have developed a passion for helping others and found my voice in my community. As an aspiring physician, I am certain that Eunice has helped me find my calling. All those months ago, volunteerism and helping others was just a means to an end. Now because of Eunice, it will become my way of life. 🌊

글 | Haemin Kim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On my first day back home from college, I couldn't wait for summer to start. Now that I was free from stress and obligations like having to write papers and lab reports, I planned on spending each day binge-watching Netflix and becoming a couch potato. And that's exactly what I did for the first week.

My mom, who realized I was being unproductive and wasting my summer away, put her foot down and insisted on sending me to NY Milal Mission. Unaware and indifferent to what this place had to offer, I refused and said I wasn't interested to which she responded back, "if you keep this up, consider your college tuition unpaid for." And so, I had no choice but to reluctantly comply and decide to start volunteering for Milal.

On a Tuesday afternoon, I met the Milal family. At first I felt like a fish out of water, having no experience

with disabled individuals. I didn't know how to approach them but a friendly face reassured me and talked about Milal's mission to share God's words with these individuals and just make them feel loved through service so they can feel like a part of society. As soon as I introduced myself, each person without hesitation asked me if I wanted to join them for a round of playing Uno.

That day was filled with multiple rounds of card games, frustration from trying to solve a jigsaw puzzle and just getting to know everyone. But although I was able to help around with a few things, I didn't feel I was making an impact in their lives.

Then came chapel time which was followed by a heartfelt sermon given by Pastor Kim that touched all of us. Seeing everyone giving praise wholeheartedly filled me with warmth that flooded throughout my body.

And just like that, my first day as a volunteer was over. Past all the complaining I felt a fire burning in my heart.

Even before I was close to navigating my way through Milal, Danjangnim asked me to look after a girl named Eunice. She was soft-spoken and shy but I could see the creativity bundled up inside her and the light in her eyes every time she pointed out colors and drew objects on a sheet of computer paper. So, my twin sister and I

spent the month of June with the heat and Eunice playing games, going for walks to the library, reading to her, working on math problems and watching movies.

I remember having to buy a birthday card for my friend so we went on a quick trip to Rite Aid and to my surprise, Eunice was having the time of her life. Browsing through silly birthday cards, we couldn't contain our excitement. Her bursting laughter made me laugh and as soon as we knew it, we were given direct glances from an employee for being too loud. I guess to us, we take for granted small excursions like these and we overlook the basic privileges we have in our everyday lives. I think the purpose of my time spent as a volunteer for Milal was just to help Eunice experience life's smallest gifts and the little pleasures and joys that the youth of our generation gets to experience like spending time with friends, trying on nail polish in Rite Aid and giggling until our stomachs hurt. Throughout this experience, I made a new friend with a lively spirit. I want to thank God for the times we spent together and bringing warmth to my heart when I see Eunice smile. I guess now I can say that Milal is genuinely a great place and I only have anticipation for this Tuesday's chapel time.💧

글 | Haesoo Kim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제14회 애틀랜타밀알 여름학교

특별한 친구들

애틀랜타밀알의 여름학교가 올해로 14번째가 되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빨간색의 티셔츠를 입은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공부와 특별활동을 통해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배웠고, 야외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간혹 친구들이나 봉사자들 서로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해 줄 때도 있더라고요. 이해의 속도와 몸의 한계가 있지만 결국엔 해내는 친구들의 면면에 놀란 적이 많아요. 찬양의 열정이 있는 성호, 조셉, 윤호. 말없이 동생들을 돕는 데이빗.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언어의 은사가 있는 노아. 누군가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의 홍민, 낯선데도 끝까지 잘 참아주는 데니얼. 눈이 크고 예쁜 마스크트 빛나. 휠체어를 움직여 앉자리에 앉곤 하는 환한 미소의 민용. 밀알 안





내지를 늘 지참하고 다니는 착한 미라. 노래를 좋아하는 씩씩한 나현. 늘 조용하게 질서를 지키는 승혁. 언제나 손을 꼭 잡아주는 하은이. 또 이들과 함께 하는 봉사자들! 애틀랜타밀알의 많은 감사 중에 봉사자를 빼 놓을 수 없어요.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애틀랜타밀알의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더운 여름을 기쁘게 지낼 수 있지 않았나! 함께 소금의 맛을 보며, 빛의 맛을 볼 수 있지요.

애틀랜타밀알의 여름학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김지호 어린이가 <특별한 친구들>이라는 글을 보내 주었어요. 특별한 친구

들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마음눈이 예쁘고, 고마워서 밀알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었어요. “이 놈의 인기란...” 말을 곁들이면서...

“우리와 다르다고 놀리는 게 아니야. 특별한 친구들도 재능이 있어. 장애가 있다고 해도 다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야. 특별한 친구들도 스스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따뜻하게 도와줘야 해. 그러면 세상이 더욱 빛이 날거야.”

글 | 조성은 사모 (애틀랜타밀알, 간사)



■ 2017 밀알의밤 특집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수, 강균성

오는 9월, 남가주와 시카고, 뉴욕과 필라델피아밀알에서 각각 개최되는 '2017년 밀알의밤'에 메인게스트로 초청된 가수 '강균성'은 그룹 <노을>의 멤버로 1981년 4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2002년 전우성, 이상곤, 나성호와 함께 남성 4인조 보컬 그룹 <노을>을 결성, 가수로 데뷔했다. 세계 최초 모바일 그룹인 <노을>에서 강균성은 미성의 고음을 가진 덕에 나성호와 함께 가사 부분이나 브릿지의 고음 애드립 부분을 맡고 있다.

그룹 <노을>에서 1-4집 정규앨범을 발표하였고, 2007년 솔로앨범 《A Path Of Love》와 2008년: 디지털 싱글 《A Serenade》를 발표하였다. 대표곡으로 <불잡고도>, <청혼>, <그리워 그리워>, <전부 너였다>가 있다.

가수활동 뿐 아니라 성대모사 등 뛰어난 개인기로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정글의 법칙> 등 각종 예능 프로에 출연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다. MBC <복면가왕>에 최초로 두 번 출연하였으며, 연기자, 라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교회나 미션스쿨 등의 간증이나 강연 행사에 초청받아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아래는 CGNTV의 <토크콘서트 힐링유>에 출연하여 함께 나눈 간증 내용이다.

강균성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여느 아이들처럼 주일에 몸만 나가는 '나일론 신자'였다가 20대 중반에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중학교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던 청년은 'LUV'가 있던 소속사를 거쳐 두 번의 소속사를 이직하며 'JYP' 오디션에 합격, <노을>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며 3집 앨범까지 내게 되지만, 결국 JYP를 떠나게 된다. 이때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다고 한다.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하지 않으실까?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 텐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잘 나가는 동료 연예인들을 보면서 질투도 많이 하였단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MEJ 연예인신앙공동체 예배'를 알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깨닫게 되면서 십

자가 복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한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나의 더러운 것들이 그 앞에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면 영광을 드릴게요.'라는 고백이 거짓 고백인 거예요. '뜨면 어떤 차를 몰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어요.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신앙이고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내 중심,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떠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고 그 분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저는 그걸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는 실수를 범했었어요." (CGNTV <토크콘서트 힐링유> 2013년 11월 4일 32회 '강균성의 삶의 나침반' 방송에서 발췌)

그저 가수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마음에 실력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였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강균성의 모습에 참다운 크리스천으로서의 향기가 느껴졌다. 세상적인 인기와 돈을 좇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욕망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오직 그분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강균성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반응하고 싶어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주시며 또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내 부족한 재능이나마 온전히 바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삶의 가치관이 바뀐 하나님의 가수 강균성이 이번 밀알의밤 무대에서도 열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공연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

앨범:

2002 1집 불잡고도 / 2004 2집 아파도 아파도, 청혼 / 2006 3집 전부 너였다 / 2011 미니앨범 그리워 그리워 / 2012 미니앨범 떠나간다, 4집 하지 못한 말 / 2013 미니앨범 잊혀진다는 거 / 2015 미니앨범 목소리 / 2016 싱글 손잡아요

글 | 이준수 목사 (미주 밀알&세계 편집장)

발달장애아와 함께 자고 뒹굴며 ‘아름다운 섬김’

- ▶ 사랑의캠프 2박3일 봉사자 등 400명 참가
- ▶ 고교생들,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 선물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 보통 얼굴의 평범한 일상 안에도 영웅의 삶이 담길 수 있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려는 순수한 열정이 바로 기적을 빚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에는 반드시 축복의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캠프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베이커스필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홀리 스웨그’ (Holy Swag)라는 주제로 밀알선교단(미주총단장이영선 목사)이 마련한 캠프는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 등 미주 서부지역 연합 행사로 진행됐다. 사랑의캠프에는 장애인과 봉사자, 스태프 등 4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캠프를 사랑으로 가득 채운 주인공은 발달장애 청소년과 이들을 돌보는 청소년 봉사자 그리고 청년 스태프였다. 이들이 2박3일 동안 함께 자고 먹고 춤추며 노래한 여정은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은 한창 공부하고 방학을 즐길 시간을 기꺼이 떼어 캠프에 합류했다. 그리고 또래의 발달장애 청소년과 짝을 이뤄 사흘을 함께 뒹굴었다. 집에서는 방 하나도 치우지 않던 티에이저도 캠프에서는 ‘사랑의 천사’로 변한다.

장애인 친구를 잠재우고, 화장실 용변을 돕고, 밥을 먹이며, 마주 보고 환한 웃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일어나 뛰어 달리는 거구의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다. 무언가 못마땅하

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곁을 지키는 10대의 봉사자들은 달래고 온갖 치다꺼리를 도맡는다. 그게 사랑의 캠프이기 때문이다.

어리광 피우며 부모에게 짜증내는 사춘기 고등학생을 24시간 ‘사랑의 보호자’로 변신시키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헌신과 책임감은 물론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의 흐름을 스스로 진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밀알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끈끈한 사랑의 동아리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것이다.

“12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빠지겠죠. 그래도 계속 사랑의교실과 캠프에 나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애가 귀여워요. 돌보고 싶어요.” (크리스티나 권, 크레센타밸리하이スクール 11학년)

“올해가 처음인데요 언니, 오빠들이 왜 몇 년씩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힘이 들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세라피나 안, 밴나이스하이スクール 9학년)

“동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좋으니까 몇 년째 하는 거겠죠. 제 친구들도 이하기를 듣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요. 사랑의교실로 몇 명 데려올 거예요.” (저스틴 김 로올라하이スクール 11학년)

“대입 준비로 몇 달 빠졌어요. 그래도 사랑의캠프라도 와야죠. 봉사자가 모자라면 힘든 걸 아니까요. 대학교에 원서 내고 1월부터 다시 참가할 겁니다.” (크리스틴 최 밴나이스하이スクール 11학년)




배이커스필드에서 열린 밀알 사랑의캠프에 참가한 LA 사랑의교실 팀.

후배들을 이끄는 대학생 스태프의 열정도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고등학생부터 봉사자로 동참하다 이제는 스태프로 팀을 지도하는 젊은이들이다.

“제가 속한 LA팀은 저의 가족이니깐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리건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니얼 하는 방학을 맞아 집에 오자마자 만사를 제치고 먼저 캠프에 뛰어 들었다.

“내가 사랑하면 재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어떤 물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얻죠.” UCLA에 다니는 대니얼 남궁은 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마치자마자 합류했고 곧 단기선교를 떠난다.

“피곤도 하고 이런저런 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상쇄하는 힘이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성진 전도사는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는 일인당 180달러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그리고 상반기 내내 비프저키, 참기름 등을 팔며 비용을 모았다. 

글 | 유정원 종교전문기자

(미주한국일보 2017년 7월 4일 자에서 발췌)

초록의 향연, 숲속에서 한때를 즐기다

어느 해보다 지루한 겨울의 냉기가 지속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랜만에 야외에서 마주치는 신록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3월 중순에 폭설이 내려 모임을 갖지 못했으니 금년 동장군의 심술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봄은 찾아오고 사방이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6월 10일(토) 모처럼 '화요 믿음의교실' 단원들과 '토요 사랑의교실'에 소속한 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야외에서 마주하는 '봄소풍'을 함께했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놀이터와 온갖 위락시설을 갖춘 'Fort Washington Park'은 밀알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한장로교회'에서 내어준 밴을 타고, 서로 조를 짜서 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1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전도서 12장>을 통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세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삶의 목적을 그분에게 두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 바비큐가 이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리하이벨리교회를 섬기시는 '김문남 집사님' 내외께서 밀알 선교단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돼지불고기를 재어 숙성시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삼삼오오' 짹 짹 꿀맛 같은 식사

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부산한 아동들도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고맙고 귀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순희 사모님'이 간을 해서 구워주신 '공치'는 별미였습니다.

포만감으로 행복한 대화를 나누던 우리들을 다시 움직이게 한 분은 '채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편을 나누고 목사님의 인도로 다채로운 게임을 즐겼습니다. 처음으로 가졌던 경기는 '종이비행기 날리기'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에 찬 표정으로 종이비행기를 접고 라인에 서서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금방 낙하해 버리는 비행기의 모습이 신통치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채예성' 군의 비행기는 거리를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날아가 모두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짹을 지어 물 마시기'는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빨대를 이용해 마시는 경기로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밖에도 '약식 볼링'등 게임이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는 초록에서 서로를 아우르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교실에 출석하는 손녀 '오소연'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미소가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솔하느라 애쓰신 '임현정 전도사님',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준 '채경수 목사님', 특별히 음식을 대접해 주신 '김문남 집사님 내외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록의 향연 속에서 함께 뒹굴며 '밀알은 하나!'임을 확인한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성경의 인물을 성극으로 만나다!

- Sight & Sound Theatre
기독교 뮤지컬 '요나'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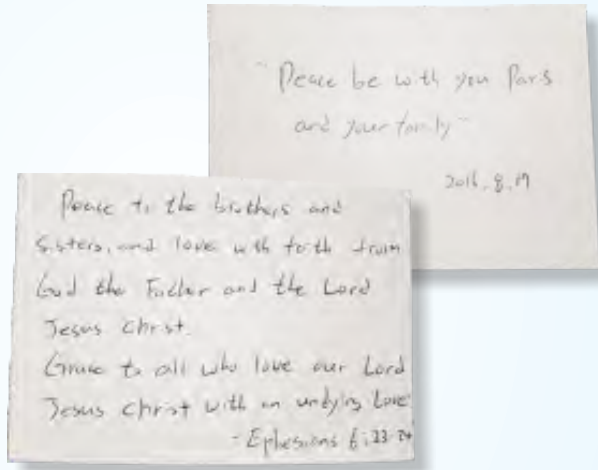
봄 소풍을 다녀오자마자 단원들이 열망하는 성극 '요나' 관람을 기획하였습니다. 매년 가는 곳이지만 평일에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올곧은 정신은 '한다면 한다!'입니다. 23일(금) 성극 '요나'를 관람하기 위해 랭커스터로 향했습니다. 단장님은 실로 많은 거리를 운전하며 단원들을 픽업하셨습니다. 언제나 충성하는 '이민성 집사님'은 두 아이와 회사까지 뒤로 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단원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인지 오후에는 맑게 갠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밑알들에게 최상의 날씨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미쉬' 마을에 위치한 'Manor Buffet'에서 푸짐한 점심을 했습니다. 다채로운 음식이 장애인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이어 매년 가려다가 포기했던 '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물품을 파는 가게들을 지나면 '잼 마켓'이 나옵니다. '아미쉬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로 직접 '잼'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모두가 신기해했습니다. 오고가는 길에 아미쉬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만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영화 속에 한 장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밭은 랭커스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드디어 뮤지컬이 막을 올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너무도 친근한 '요나'. 요나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장면으로 성극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사명을 저버릴 때에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버려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은 좌중의 우리와 같은 박수를 이끌어내기엔 충분한 명 연출이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성경에서 만났던 요나를 실제로 만난 듯 한 착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당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 따스한 위로

Rest in Peace, Paris!

손님이 뜬한 오후시간, 어른 둘과 어린이 한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가게 안을 돌아보더니 프론트에 있는 저를 부르십니다.

“저 위에 있는 옷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손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옷을 내려 “사이즈 몇 입으세요?” 하며 옷을 건네주는 순간, 옷을 받아든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렇게 당황해하던 저에게 그 여성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던 또 다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친구의 9살짜리 딸이 죽었어요. 그 딸 이름이 Paris예요.”

제가 내려 준 옷에는 큰 글씨로 Paris가 새겨져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받아든 여인이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막내 딸아이 장례식 때 입을 옷과 장신구를 고르는 이 여성과 아직 동생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한 첫째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분을 위로해주세요...”

쇼핑을 다 마치고 계산을 부탁하는 Paris 엄마에게 “이 드레스는 제가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도 딸이 둘 있거든요.” 라고 하니 계산대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터트립니다..

그렇게 계산을 다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는 Paris 가족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함께 기도해도 괜찮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는 말에 이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Paris와 Paris의 엄마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Paris 가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평강 가운데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Paris가 평강의 하나님의 품안에 안식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딸의 잃은 슬픔 가운데 가슴아파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Paris를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남은 가족들과 함께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가게를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눈물의 여운이 오래도록 촉촉이 남았다. 🌊

글 | 이승민 전도사 (샬롯밀알 지소장)



■ 밀알공통

2017 남미밀알 단장 컨퍼런스

2017 남미밀알 단장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6월 26(월)~29일(목)에 브라질밀알선교단 주관으로 브라질 상파울로의 브라질밀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아르헨티나밀알선교단이 세워지면서 기존의 브라질, 파라과이밀알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밀알을 묶어서 본부인 세계밀알연합 이재서 총재께서 미주총단 내에 남미지역총단을 세우셨습니다. 미주총단 내에 있기는 하지만 북미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사역 상의 특색이 있으며, 최근에 세워진 두 지단들이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에 그 필요성으로 브라질밀알 이사회에서 남미의 지단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 남미지역에 있는 장애인선교를 담당하는 세 사역지의 책임자들이 함께하여 남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장

애인 선교사역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각 지역의 사역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컨설팅 하여 돕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26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된 개회예배에는 브라질밀알 이사장 홍순표 목사의 사회, 전봉옥 이사의 기도, 이기섭 목사의 성경봉독, 김영수 목사의 설교, 그리고 강성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브라질의 이사들이 예배를 주재하였으며 이후에 단장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9일(목)에 예정된 모든 시간을 마칠 때까지 오전과 오후에 계속적으로 단장들의 컨퍼런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미 각 지단의 사역을 되짚어 보고, 장/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역, 남미 지역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역, 그리고 사역 속에서 느끼는 고민을 나누었고, 특히 둘째 날



에는 각 단장들이 준비한 강의를 돌아가면서 하였는데 질의-응답을 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역 컨설팅 시간으로 이사회 및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 행정, 재정, 사역홍보 및 마케팅,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상 파울로 인근에 있는 유명 관광도시로서 브라질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캄보스 두 조르딩'에 다녀오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고가는 시간에도 서로의 필요들을 나누었으며, 전날 사역 컨설팅 시간에 다루었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시간의 부족으로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탈진(Burn Out)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컨퍼런스는 남미에 있는 세 지단들의 단장, 이사장 및 이사들까지 함께 참석하여 남미의 리더십들이 밀알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 선교의 마인드를 공유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남미밀알 리더십 컨퍼런스'로 기획하였으나 아직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이사진들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단장들만 참석하여 '단장 컨퍼런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이사진들이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생겨서 행사 직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지만,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단장들과 브라질의 이사진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담당하는 단장들이 먼저 생각을 공유하고 사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이렇게 행사가 바뀌게 하셨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심과 저녁식사는 브라질밀알의 이사들이 한 번씩 정성으로 식사를 대접하여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행사가 마무리 될 때에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밀알의 단장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사역의 방향성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기에 매년마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풍성한 은혜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글 | 최은성 목사 (브라질밀알, 단장)

뉴욕

뉴욕제일장로교회 남선교회 밀알홀 방문

뉴욕제일장로교회 남선교회에서 밀알홀을 찾아오셔서 지붕을 수리해 주시고 낡은 곳을 새로 교체해 주시며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주셨습니다.

남선교회 광승협 집사는 “몸이 불편해서 주변을 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불편을 참고 사는 것이 안타깝워 보인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며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곳을 돌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민규 형제 재판

김민규 형제의 재판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장애인 사건을 따로 판결하는 곳으로 이관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재판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 김민규 형제의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화요찬양예배 상반기 결산 예배

6월 27일 화요찬양예배 상반기 결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전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바이블 클래스로 모이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화요찬양 예배가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있었고 무엇보다 장애인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예전과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느껴집니다.

잠시 동안 휴식기를 통해 화요찬양예배를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고 주님의 임재로 살아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 송별회

그동안 사랑의교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사랑을 나눴던 상영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송별회를 열고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로 함께 나눈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친구였습니다. 형제님은 장애인들의 소중한 친구였고, 언제나 겸손했고, 다

정한 미소로 함께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밀알에서 보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사랑의캠프 봉사자 교육

7월 15일 사랑의캠프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매년 사랑의캠프를 준비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알려드리고 누군가를 배려할 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공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든 분들이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총무님과 디렉터 분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 2017년 사랑의캠프에서 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올해 밀알의밤 행사에 주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화요찬양예배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Social Service

6월20일 김민규 신경과 진료 / 6월23일 유명희 앨러지와 진료 / 5월26일 이순영 내과진료

뉴저지

화요예배 설교

6월 13일(화) 화요예배에는 버겐카운티교회 김영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버겐카운티교회는 오래 전부터 밀알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교체하시며 아들 조슈아도 방학을 맞아 밀알에서 봉사하려고 매주 화요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화요모임: 스피너 만들었어요

6월 화요모임 아트 크라프트 시간에는 한애리 선생님과 스피너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파란, 노란색을 한 색깔씩 칠한 뒤에 예쁘게 오려

약간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반대편에도 여러 가지 색을 칠해 오려 붙인 후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실을 끼워 묶으면 멋진 스피너가 완성됩니다.

구멍 사이에 끼워 넣은 실의 양쪽 끝을 잡아 빙글빙글 돌리면 스피너의 양쪽의 실이 감기게 되고 충분히 감긴 후에 양쪽 끝을 잡아당기니 가운데 스피너가 빠르게 돌면서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피너를 돌리면서 즐거워하고 색칠도 하고 가위를 이용해 오리기도 하고 풀칠도 하면서 손가락의 잔 근육을 사용하도록 도우니 우리 밀알 친구들에게 두 배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굉장한 멋진 스피너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본부 사랑의교실 여름방학

6월 24일(토) 본부 사랑의교실이 방학을 했습니다. 9월 9일(토)에 새롭게 개학합니다. 밀알 친구들은 7월에 사랑의캠프, 그리고 8월에 여름성경학교로 다시 만납니다.

한 학기동안 사랑의교실을 즐거워하며 힘써 참석하신 우리 밀알 친구들, 그리고 예배를 인도 해주신 줄리아 전도사님, 성실하게 봉사해준 학생봉사자들, 든든한 슈퍼바이저들께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동산교회, GIM 청년팀에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점심 식사 봉사를 해주시는 이항구, 이영선, 은미숙, 이정이님도 감사합니다.

방과 후 학교 배드민턴

시원한 여름 바람과 햇살, 비타민D를 듬뿍 받으며 방과 후 학교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햇스윙을 하면서도 그저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 참여하는 Isaac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꿈터 나눔 음악회

밀알꿈터추진위원회(대표 오수영)는 매년 음악회를 열고 밀알꿈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5일(일) 오후 5시 30분 소망장로교회에서 ‘아버지의 초상’이라는 연극을 공연하였습니다.

매년 오케스트라로 참석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 김정길 단장님의 ‘Family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밀알동산가족 영화관람

6월 28일(수) 밀알동산가족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영화는 '천천히, 평화롭게'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독일계 미국 선교사님의 한국 선교 일대기를 그린 다큐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신앙관이었는데 영화를 관람하며 우리 밀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밀알가족들과 영화도 함께 보고 또 김요영 장로님께서 맛있는 햄버거도 사주셔서 점심도 함께 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업 축하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 밀알 친구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라이드 봉사를 참 열심히 해주신 장시원 집사님께서 네일샵을 오픈하셨습니다.

6월 29일 밀알동산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건강하실 때 하셨던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신타면 더 열심히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업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E-Nail / 17 Outwater Ln. Garfield, NJ 07026>

필라델피아

제15회 밀알의밤에 초대합니다! (9월 9일)

'창조자여, 창조자를 기억하라!(전도서 12:1)'는 주제로 2017 제 15회 밀알의밤이 9월 9일(토) 오후 7시 <기쁨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막을 올립니다. 금년에 초대된 메인 게스트는 그룹 <노을>의 멤버이며 수준급의 가창력을 소유한 '강균성' 형제입니다. 노래뿐 아니라 예능 감각도 뛰어난 '모창의 대가'로 웬만한 가수의 노래는 거의 완벽하게 흉내를 내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특유의 유머 감각도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과 간증이 가능한 신실한 크리스천 연예인입니다.

2011년 그는 '혼전순결서약'을 외치며 고고히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강균성'의 공연을 통해 청년들이 도전을 받으며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새 15회를 맞이하는 '밀알의밤'을 통해 어느 해보다 영적인 감동이 필라델피아에 번져가기를 기대

합니다. 지금 바로 예매처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 <예매처> 첼트햄 지역-롯데화장품(H-Mart 내), 랜스데일 지역-이화 비디오투(아씨 마켓 내), 어퍼다비 지역-몽실통통(H-Mart 2층)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초가을의 정취를 숨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부 사랑의캠프 (7월 20일-22일)

25회 동부 사랑의캠프가 6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꿈과 행복을 안겨주는 캠프는 캐나다(토론토)로부터 '시카고밀알' 조지아 주 '애틀랜타밀알'까지 기대감을 안고 모여 들었습니다. 주최 측인 워싱턴밀알의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25회에 걸맞은 귀한 캠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5주년을 기념하여 밀알선교단 설립자이며 세계밀알연합회 총재인 '이재서 총재님'과 사모님이 동석해 주셨고, 성인 캠프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남용 목사님'(서울 사당동, 삼광고회)이 오셨습니다. 아동 캠프 강사로는 3년 연속으로 '김은예 전도사님'(New Spring Church)께서 특유의 파워풀한 말씀을 증거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밀알&세계 9월호에 담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밀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쁨의교회 사랑의교실 방문(3일)

1년에 3번(3월, 6월, 9월)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찾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의교회(박성일 목사 시무) '마리아전도회'(회장: 채승아)에서 금년 두 번째로 사랑의교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조민정 부회장을 비롯한 '김윤경, 옥정인, 윤선행, 김용주, 문효정' 회원님과 가족인 'Joshua KIM, Dennis KIM' 부자가 찾아와 봉사해 주셨습니다. 몇 년의 걸친 봉사는 이제 아동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지를 알아차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한상 웃는 열굴로 밀알선교단을 찾아와 주시는 '마리아전도회'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월에 다시 만나요!

봄 소풍 다녀오다! (10일)

신록이 깊어가는 봄날에 춘계 야외예배(봄 소풍)를 다녀왔습니다. 10일(토) 화요 '믿음의교실' 가족들과 토요일 '사랑의교실' 친구들이 야외 나들이를 함께 한 것입니다. 장소는 'Fort Washington Park'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공원에 모인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전도서 12장>을 통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

다. 야외식사를 위해 리하이벨리교회에서 충성하시는 '김문남 집사님'이 돼지불고기를 잘 재어 숙성시켜 제공하심으로 어느 때보다 맛있는 바비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동부 화창한 봄 날씨와 초록이 어우러져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맛있게 야외 식사를 마친 후 '채경수 목사님'이 흥미롭고 다채로운 게임을 인도해 주셔서 '토요일 사랑의교실 & 화요 믿음의교실' 가족들이 어우러져 추억에 남을 소풍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초록에서 서로를 아우르는 모습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날려보는 '종이비행기'는 마음처럼 날아가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약식 볼링은 생각처럼 구르지 않아 또 한 번 웃었습니다. Nursing Home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장애인들이 공원에 나와 신선한 바람을 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당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독교뮤지컬 '요나' 관람(23일)

<Sight & Sound Theatre>

필라델피아에는 크리스천들이 몰리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랭커스터의 위치한 <Sight & Sound Theatre>입니다. 매년 공연관람을 이어 오고 있는 밀알선교단 <믿음의교실> 단원들이 절찬 공연되고 있는 성극 '요나'를 관람하기 위해 23일(금) 랭커스터로 향했습니다. 금년에는 단장님과 '이민성 집사님' 차에 나눠 타고 움직였습니다.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밀알들에게 최상의 날씨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가는 길에서 나누는 우리의 대화는 정경이 그지없었습니다.

우선 '아미쉬' 마을에 위치한 'Manor Buffet'에서 푸짐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다채로운 음식이 장애인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었습니다. 이어 '잼 공장'이 위치한 몰로 움직였습니다. 아미쉬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로 직접 '잼'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모두가 신기해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아미쉬'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대하며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 한 기분 좋은 착각을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밭은 랭커스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드디어 뮤지컬이 막을 올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너무도 친근한 '요나'. 특별히 바다에 버려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은 좌중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명 연출이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성경에서 만나던 '요나'를 실제로 만난 듯 한 착각을 일으켜 주었

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먹던 냉면은 맛을 넘어서 사랑의 음식이었습니다. 대접해 준 '김도환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의교실 새 친구 등록(24일)

토요 사랑의교실에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준서'.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준서'는 부모님과 함께 출석을 했고, 미국에 온지 열흘밖에 안 되는 새내기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친숙해지고 적응하며 모두와 잘 어울리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주사랑 자매가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교실 식사봉사(13일)

6월에도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화요 믿음의교실> 장애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한식구가 된 교회에서 매달 식사 봉사를 해주는 것이 감동입니다. 13일(화) '예수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대접해 주셨고,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마음 따뜻한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인장애인 모임인 '화요 믿음의교실(매주 화요일)'에 장애인들을 라이드 해주실 분, 악기연주와 찬양으로 모임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봐주실 분들도 기다립니다. Youth Group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Credit을 발행합니다. 9학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215-913-3008

화요 '믿음의교실'

<매주 화요일 PM 7:30분-9:30분>

6일: '말발성경공부'-'지기님'들의 인도로 예배자의 자세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일: '영상 감상'-'정신장애'를 가진 떠돌이 '피아니스트'의 애환을 느끼는 영상을 감상하였습니다.

20일: 'Step by Step'-어린이 동화 '동물 음악 합주단'을 보고 새로운 시각과 개념으로 해석해 보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27일: '1:20(희한한 0게임)-누구나 평소에 겪었을만한 상황을 외치고 해당되는 숫자를 맞추어보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AM. 10:00- PM. 4시>

10:30 환영/10:50 찬양과 예배/11:30 성경 읽기, 그림 그리기/12:00 점심식사 /1:00 야외 활동/2:00 영화 감상, 작품 활동/3:00 핸드벨 연습/4:00 정리 및 폐회

3일: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한 주 쉬고 맑은 토요일 아침에 모두 활기차게 토요 사랑의교실에 모였습니다. 오전활동으로 성경이야기를 읽어 주기도 하고 비즈로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찬양은 CD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진주가 반주하여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입하신 가죽옷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신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설교말씀에 관련된 그림을 'coloring'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Lansdale Festival'에 참여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명씩 손잡고 안전하게 안내해 주면서 festival을 즐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쁨의교회에서 같이 봉사 오신 Dennis 집사님과 그 아들 Joshua까지 같이 참여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산책 겸 천천히 걸으면서 각종 다양한 vender들의 모습들을 구경하고,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 주는 선물들도 받으면서 축제의 흥을 즐겼습니다.

10일: 밝고 맑은 화창한 봄날 아침, 화요 믿음의교실과 토요 사랑의교실 식구들이 연합하여 Fort Washington State Park로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새한교회에서 교회 밴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7일: 아침 일찍 문을 열며 오전활동으로 소근육 발달을 돕는 비즈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활동 후에 본당으로 올라가,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불편한 몸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하는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서, 원죄로 인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써보고 색깔을 입혀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점

심식사 후에는 어느 정도의 휴식과 소화를 위해서 20분정도 영화를 감상하고, 국민체조로 오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가지 종류의 체조를 하는 20분 동안 모두 성실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조차도 체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체조 후에는 풍선테니스, 볼링, 골프, 태권도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였는데, 성공할 때마다 환호도 해 주고, 잘 안되면 잘 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일: 오늘은 새 친구 '김준서'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밀알선교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주사랑'양이 자원 봉사를 하기 위해 일찍부터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재활치료에 관한 공부를 하기 원한다.'는 사랑이는 '이곳 밀알에서 봉사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는 소연이를 돌봐주며 성실과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예배시간에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서,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주의 백성들이며,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의 방주에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오랜만에 외부로 나가 산책도 하고, 랜스데일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친구들이 옆에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들 스스로 읽도록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식사봉사: 3일-기쁨의교회(박성일 목사 시무), 10일-봄소풍, 17일, 24일-자체.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15-913-3008

단장 사역 보고

<설교> 18일(주일): '첼트햄장로교회'(담임공석) / 28(수): NEW YORK '주사랑장교회'(정준성 목사 시무) '제6선교 헌신예배'

<방문> 3일(토): '필라문인협회' 주최-〈제2회 문학의 밤〉 사회, 특송 / 4일(주일): '한인필라델피아교회'(장성식 목사 시무) / 11일(주일): '벤살렘교회'(차명훈 목사 시무) / 13일(화): KAPC 필라노회 '동부시찰회'-삼일장로교회 방문(배현기 목사 시무) / 14일(수): 중국선교사 '김후종 선교사 부부' 미팅 / 22일(목)-24일(주일): '대필라지역복음화대성회' 장소: 필라한인연합교회. 강사: 양명환 목사(한국형성감리교회) / 25일(주일): '앰블러장로교회'(조성수 목사 시무)

재정보고 2017년 6월

뉴욕

수입부: \$22,208.90

개인: \$1,170.00 \$10 Kyung Ja Kang / \$20 Kil Do Yoo / \$50 Kyong C Burchan / \$90 Young Chul Park / \$100 Seop Song, Soon Kyu & Grace Shin, Jasong Kim & Byongin Choi / \$200 Hee Seung Han / \$500 KI R Chung

교회/단체: \$5,495.00 \$20 Sky Cleaners / \$30 KS Nail / \$100 The Siloam Reformed Church, Salon Today, Northern Pharmacy LLC, Woori Church of New York, Myung Sung Church / \$30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The Korean 1st Presbyterian Church of NY / \$400 Namu Church of New York / \$700 Pick&Pack Produce Inc / \$745 화요모임 / \$1,000 Dashing Diva Franchise Corp / \$1,500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이사회비: \$2,500.00 Dae Sung Kim

지정: \$1,940.00 SSI

사랑의캠프: \$11,103.90 <\$2,103.90 참가비> <\$9,000 후원금: \$200 Speedy Enterprise of USA Corp / \$500 NYBS / \$600 Su Jin No / \$700 Pure Presbyterian New York Church / \$2,000 Woori Church of New York / \$5,000 J&A USA Inc)

장소후원: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 토요사랑의교실(어린이반) / 뉴욕 장로교회 - 토요사랑의교실(성인반&청소년반) / 퀸즈성결교회(조승수 목사) - 화요찬양예배

물품 및 음식후원: 권영준, 더큰집, 토요 Society, 월사모, 광승협, Long Island Mom, 하은희낙원잔치집, 한마음스시팀, 구주원꽃집, 총영사관 부인회, Kyle's Kimchi, Paldo

지출부: \$29,196.68

장애인복지: \$4,047.60 모기지 \$3,300.07 / 소득비 \$50 / 비품구입비 \$206.12 / 정원관리비 \$326.63 / Time Warner Cable \$164.78

사랑의교실: \$3,350.00 토요사랑의교실 운영비 \$2,850 / 식사&간식비 \$500.

선교비: \$2,865.41 직원인건비 \$879.29 / 상회비(2017년 5월)

\$566.12 / 밀알&세계 \$820 / 선교비 \$600

전도봉사비: \$4,647.10 활동비 \$800 / 경조비 \$377.10 / 장애인보조 \$1,000 / 출장비 \$1,670 / 화요모임 \$800

사무비: \$7,465.97 직원인건비(2명) \$4,046.26 / 전기요금 \$314.20 / 세금 \$1,391.32 / 비품구입비 \$176.71 / 수리비 \$73.63 / 보험 \$688.85 / 은행비 \$25 / 회계사비 \$600 / Retirement Benefit \$150

차량유지비: \$2,040.60 모기지 \$488.68 / 보험 \$800 / 유지비 \$180.67 / EZ pass \$310 / 수리비 \$112 / Parking Fee \$2.75 / Registration \$146.50

행사: \$4,780.00 사랑의캠프 \$4,780(회비 \$4,000 / 홍보비 \$400 / 차량수리비 \$380).

전월이월금: \$5,328.30 | 차월이월금: \$1,659.48

밀알의밤 지출: \$2,050.00 사무실 렌트비

뉴저지

수입부: \$17,012.00

개인: \$4,890.00 \$10 Sugene April Kim, 교육자, 광선희 김현진, 서진호, 손주형, 이동수, 이충희&이미경, 조소형, 최윤경, 홍은실&이성운 / \$20 Jae Hong Park, Young I Kim, 박광민, 서향원, 안영근, 장영빈&장규진 / \$30 Rok Hur, Tori Scott & Gary Scott / \$40 이진규&박혜원, 홍성혁 / \$50 김봉례, 엄이든&엄예든, 호민선&호연희, 무명 / \$80 James Lee & Grace LEE / \$100 Andrew Kim & Kyong Kim, Sunme Kim&Jun Ho Joo, 김경문&김재순, 김영삼, 김일영, 박찬호, 서정용&서덕희, 신은영, 이상욱&이옥진, 이영택, 이윤아, 주우식&주안나, 최선호, 한원민, 무명 / \$200 Joungwon Lee, 김영옥 / \$240 Younghee Kim / \$300 Marc Kaplan&Hyerim Kaplan, 임순옥 / \$500 박종훈 / \$1,000 무명

교회: \$5,092.00 \$50 베다니연합감리교회, 산소망교회 / \$92 뉴욕선교교회 / \$100 Fairfield Korean Church뉴저지연합교회, 시심나교회, 예수드림교회 / \$150 리버사이드교회 / \$200 버겐카운티장로교회, 네모선교회, 뉴저지참된교회, 뉴저지초대교회, 아가페장로교회 / \$300 뉴저지하베스트교회, 필그림교회, 무명 / \$350 뉴저지민음장로교회 / \$500 버겐카운티장로교회 / \$600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 \$1,000 찬양교회

단체: \$890.00 \$40 Young At Heart / \$50 SOLDAN America Inc /

\$300 노성일 CPA / \$500 ADIO Corrective Chiropractic LLC

장애인 꿈터: \$130.00 \$30 채재동 / \$100 홍호선

지정후원금: \$6,010.00 <방과후학교 \$1,200: 강한선, 김준영, 오수잔, 이지은, 최다솔> <사랑의집 \$2,050: 강원호, 강건, 초롱, 무명> <화요모임 식사 \$1,200: 뉴저지순복음교회, 이동수&곽선희, 이승윤&이원석, 필그림 교회권사회> <사랑의교실 \$460: Clarktown Senior HS S General Organization Fund> <방글라데시 \$650: Eunjin H Suh DDS, 김미나, 박찬호> <장애인후원 \$450: 강건, 뉴저지베델교회, 최에스터>

사랑의캠핑후원 \$7,770.00 \$30: 김예은 / \$100 강한선 / \$180: 박호경&민준식, 신은영, 이상욱, 조상현&조혜은 / \$200 이동수&곽선희, 이경윤 / \$320 곽노은 / \$500 Eunjin H Suh DDS, 박가희, 최양남 / \$900 사랑과진리교회 / \$1,800 베다니연합감리교회 / \$2,000 Shake-N-Go Fashion

꿈터뮤지컬 \$4,622.00 \$60 Heejung Ahn / \$100 Camille Samuel, John Park, Myung H. Jun, 강한선, 김예은, 유성중, 이화여고뉴욕동창회 / \$200 Nam Hee Lee& Yong Joon Jun, / \$250 Kaflin Inc, Kapli Inc, / \$512 무명 / \$400 Nail Ateler / \$500 David B Yoo, Lilly Fashion, 김진수 / \$1,000 D&W Shin Realty Corp

마라톤대회 \$3,604.00

지출부: \$34,259.39

사무관리비: \$3,718.64 간사인건비(3명) \$1,950 / 세금공과금 \$519.56 / 보험비 \$471.11 / 복사기리스 \$353.68 / 은행경비 \$56.40 / 우편물발송 \$195 / 전화비&인터넷 \$172.89

선교비: \$14,044.92 단장사례비 \$2,500 / 선교활동 \$1,033.41 / 선교지원 \$600 / 자동차관리 \$1,216.85 / 자동차보험 \$444.50 / 방과후학교 \$2,080 / 화요모임 \$1,250.32 / 밀알&세계인쇄 \$904 / 밀알&세계발송 \$350 / 중앙비 \$465.84 / 본부사랑의교실 \$2,500 / 중부사랑의교실 \$700

복지비: \$4,841.82 사랑의집(모기지) \$2,646.09 / 사랑의집운영비 \$1,140.29 / 유틸리티 \$305.44 / 생활비지원 \$750

꿈터: \$11,654.01 이자(2명) \$2,830 / 변호사 \$500 / 유틸리티 \$438.01 / 공청회 \$7,886

전월이월금: -\$64,927.05 | 차월이월금: -\$82,174.44

장소후원: Calvary UMC, 참빛교회, 찬양교회

음식후원: 초대교회, 필그림교회, 디미방, 아리랑왕만두, 은하수잔치집, 프렌즈잔치집, The 12 Baskets

필라델피아

수입부: \$5,295.00

이사회비: \$500.00 \$100 이재철, \$200 조현우, 차형원

개인: \$2,325.00 \$20 고영선, 박산, 손주환, 신필립&고은별, 유경자, 황인권 / \$40 이경애, 임현정 / \$50 양찬모 / \$100 김선미, 이기복, 정문호, 지용운 / \$120 Jennifer Lee, 고성욱 / \$200 이순숙, 무명 / \$500 이재철 / \$535 무명

교회: \$600.00 \$100 기쁨의교회, 체리힐평강교회 / \$200 성도교회, 첼튼햄장로교회

단체: \$100.00 마디병원

특별 지정 현금: \$1,770.00 \$1,570 동부사랑의캠핑 / \$100 최민국(사랑의캠핑 후원) / \$100 예수사랑교회

지출부: \$9,145.61

선교비: \$4,378.72 장학금 \$300 / 본부지역 분담금 \$1,800 / 단장사례비 \$1,200 / 활동비 \$300 / 상회비 \$260 / 자동차 보험비 \$124.26 / 가스 및 심방경비 \$229.41 / 자동차수리비 \$65.05 / EZ-Pass \$100

사무관리비: \$966.21 간사사례 \$600 / 통신비 \$113.34 / 인터넷 \$77.88 / 선풍기구입 \$37.09 / 화장실타올 \$38.90 / prime fee \$99

건물 유지비: \$588.18 모기지 \$300 / 정수기 사용료 \$38.99 / 전기세 \$126.18 / 난방비 \$14.96 / 수도세 \$32.02 / 하수도세 \$76.03

사랑의교실: \$1,0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800 / 사랑의교실 교육비 \$200

미디어선교: \$1,012.50 밀알&세계 발송비 \$192.50 / 밀알&세계 인쇄비 \$820

복지부: \$1,200.00 사택보조비

전월이월금: \$7,518.04 | 차월이월금: \$3,667.43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301호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smilal@milalmission.com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 www.nymilal.org

42-19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 Tel: 718-662-8779 / Fax: 718-445-4887 / Email: nymilal@hotmail.com
Group Home: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Tel: 718-445-4442 / Fax: 718-445-4887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토요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아동반: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청소년반/성인반: 뉴욕장로교회
그룹홈 운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Group Home
컴퓨터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00 ~ 3:00	Group Home
Cooking Class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Group Home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월사모)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6:00 ~ 9:00	
직업재활(교회청소)	성인대상, 교회 환경 미화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 www.mijumilal.org

1225 River Rd. Teaneck, NJ 07666 / Tel: 201-530-0355 / Fax: 201-530-0344 / Email: miju92@gmail.com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분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Calvary UMC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중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찬양교회	15 Ceder Grove Ln, Somerset, NJ 08873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30	밀알 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 www.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민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미주밀알선교단 워싱턴 / 볼티모어 / 버지니아 / 리치몬드 / 샬럿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뉴저지(중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남가주LA / 남가주OC / 텍사스 / 하와이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유럽밀알선교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오스트리아 / 화란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한국밀알선교단 강원 / 경기 / 고성.사천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김해 / 거제.통영 / 경남(진해) / 마창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파주 / 양산 / 경기광주

기타밀알선교단 뉴질랜드 / 호주 / 러시아 브리야트 / 인도 / C국(A,B) / 태국 / 네팔 / 이집트 / 카자흐스탄

강균성 초청 2017 밀알의밤

시카고밀알

9월 8일 (금) 오후 7:30

Christian Heritage Academy (315 Waukegan Rd, Northfield, IL 60093)

문의: 시카고밀알선교단 (847-877-4202 / chimil94@gmail.com)

필라델피아밀알

9월 9일 (토) 오후 7시

기쁨의교회 (1911 W Marshall St. Norristown, PA 19403)

문의: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215-913-3008 / philamilal@hotmail.com)

뉴욕밀알

9월 10일 (일) 오후 6:30

뉴욕장로교회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문의: 뉴욕밀알선교단 (718-445-4442 / nymilal@hotmail.com)

남가주밀알

Valley:

9월 15일 (금) 오후 7:30 | ANC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LA:

9월 16일 (토) 오후 7:00 |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OC:

9월 17일 (일) 오후 7:00 |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562-229-0001 / smilal@milalmission.com)

공연에 관한 문의는 해당지역 밀알선교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